

안중근의 평화리더십

- 동양평화론을 중심으로 -

오 상 준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문요약>

이 논문은 100여년 전 동북아평화를 달성하고자 했던 안중근이란 인물의 평화리더십에 담긴 사상과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동양평화론이 오늘날의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주는 의의와 더불어 제주에 던지는 함의를 담고 있다.

아직도 동북아는 19-20세기 초반부터 이어진 불안한 국제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는 100여년 지난 지금도 강대국의 대결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동북아는 분쟁의 화약고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100여년 전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하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서 ①동양평화회의의 조직, ②공동은행 설립과 공동화폐 발행, ③공동의 군단결성, ④동북아경제 공동체 건설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안보현안들이 준비한 현재의 동북아 상황에 적실성있는 방안이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다만 다른 점은 안중근은 여순을 동북아 3국의 평화중심지로 주창하였으나, 지금 평화구축의 중심지로 제주를 주목하지는 것이다. 제주는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정부가 지정한 평화의 섬이자, 동북아경제의 중심축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안중근이 던졌던 평화의 해법들이 제주의 현재와 닮아 있는 것이다. 이제 제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을 선점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 평화, 평화리더십, 안중근, 동북아 평화

1. 서론

19-20세기 참혹한 전쟁의 기억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동북아에 속해 있던 한중일리는 자국의 절대적 이익을 위해 때로는 홀로, 때로는 세력균형을 통해 참여하게 맞섰고, 이는 동북아의 근대발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국가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21세기에도 이와 같은 대립은 끝나지 않고 있다. 19-20세기 초반부터 이어진 불안한 국제관계는 20세기 중반에 냉전을 걸쳐 지금도 진행중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동북아의 모습을 어떤가? 일본은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로 나아가며 보수화와 군비확장의 길로 내닫고 있고, 중국은 대중화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의 일극지배체제와 대항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의 네오콘의 개입과 북한과의 핵 카드 사이에서, 그리고 중일의 패권주의의 충돌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로 동북아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필자가 주목한 평화리더십의 대상은 안중근 의사(이하 안중근)였다. 그동안 필자는 안중근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1909년 이등박문¹⁾을 저격하여 숨지게 한 의사이자 열사라고 알고 있었을 뿐 그의 삶과 행동 그리고 그를 지탱한 사상이나 정신이 무엇인가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그의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유해발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미 100여년 전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동

1) 이등박문은 일본의 근대사에서 대단히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에 공헌한 그는 유신후 14년째 되는 해에 최고지도자가 되는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리고 1882년 유럽으로 가서 프러시아의 헌법과 제정러시아의 헌법을 도입하여 귀족제도, 내각제도, 추밀원, 일본제국헌법 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또한 상징적인 존재인 메이지 천황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뛰어난 정치감각을 발휘하여 식민지 시대의 자신의 입지를 세계적 것으로 확대하였다. 명실공히 권력의 최고 위치에 오른 그를 강대국들은 일본의 실력자로 인정하였다. 사키류조, 『광야의 열사 안중근』, 고려원, 1993.

양평화론을 주장했던 사상가였던 사실이 강조됨으로 인해 안중근은 오늘날의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적실성있는 주제로 다가왔다.

안중근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던 독립투사이자 민족주의자였고, 이등박문의 제거를 통해서 동양평화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닌 동양평화주의자였다. 이러한 평가는 백암 박은식이 “안중근을 어떤 사람은 몸 바쳐 나라를 구한 지사라 하였고 또는 한국을 위해 복수한 열렬한 협객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런 찬사에 그친다면, 미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중근은 세계적 안광을 갖고 평화의 대표자임을 자임한 사람”²⁾이라는 소개와 김영호가 “안중근은 한국독립운동의 영웅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주의자, 아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Jean monet(유럽통합의 아버지)로 소개하며 그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최선두에 세울 것을 제의”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³⁾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문은 안중근이 동양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구했던 평화리더십의 사상과 가치를 되새기고, 자서전과 최후변론 등을 통해 그의 동양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궤적을 고찰하여 보았다. 여기에는 아직도 불안하게 유지되는 동북아시아 각국이 안중근이 지향했던 동양평화론의 진정한 뜻을 새겨보라는 의미와 그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리더십의 소유자이자 동북아시아 국가에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평화활동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II. 당시의 사상적 조류

1. 국내의 사상적 배경

18세기 후반기에 국내 북학파의 박제가와 같은 진보적 사상가들은 췌

2) 滄海老舫 室稿 「安重根傳」大同編輯局 刊行, 1912. 緒言

3) 「한겨레」, 2008년 3월 26일.

국주의를 청산하고 민간상인의 외국무역을 허용하며 서양인 선교사를 초빙해 그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19세기 중엽에는 이규경, 최한기에 와서 서양 여러나라와의 통상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⁴⁾ 그리고 안중근이 태어나던 무렵인 19세기 후반에는 근대적 정치체제 및 경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개화파 정치세력이 일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쇄국정책으로 인해 자율적 문호개방의 기회를 잃었으며, 결국 일본의 강요에 의해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말았다.

하지만 문호개방 후에도 지배층의 개화정책은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여전히 외세의존적이고 몰주체적인 성격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유생층의 개화반대론 역시 대원군정권의 쇄국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동도서기론 역시 사회경제적·기술적 근대화는 어느 정도 시도되었다 해도 정치면에서는 역시 전제군주제의 유지에 한정되는 등 개혁조치에 미온적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유포되었던 척사위정론은 조선왕조의 전제주의 정치체제와 증세적 지주·전호제 경제체제, 그리고 양반지배의 신분체제 및 성리학적 사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데 더 많은 목적을 둔 반시대적 사상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⁵⁾

이후 지식인층 사이에 다시 사회진화론이 등장하였다. 지식인들은 우선 사회진화론을 통해 각 민족이 생존을 경쟁하고 제국주의가 팽배하는 상황에 대한 논리적 설명의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회진화론은 밖으로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인종간의 대립을 강조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으로는 민족내부의 일반민중을 미개한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일면이 있었기 때문에 개화기의 일부 지식

4) 정약용은 북학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론을 폈고, 이규경은 문호개방론, 최한기는 서양근대문화 수입론을 제의했다. 강만길, 『고쳐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p.280.

5) 위의 책, p.182.

인들은 사회진화를 위해 투쟁하는 기본단위를 민족보다 인종 내지 종족에서 찾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조선과 중국, 일본 등 세나라 황인종이 협력하여 백인종과의 투쟁에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⁶⁾ 이와 같이 애국계몽운동의 이론적 기초였던 사회진화론 역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경쟁을 통해 사회진보를 추구하는 논리로써 강자인 제국주의가 약자인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제국주의의 침략논리로 변질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상황은 문호를 개방한 정치세력이 외세에 의존하고 그것의 도움으로 전제주의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상적 기반으로 말미암아 외세에 대한 예속과 나아가서 식민지화의 길로 연결되고 말았다.

2. 일본의 사상적 흐름

반면, 일본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전통적 화이사상을 해체시키며 이러한 중화 도덕국을 굴복시킨 영국의 화포는 의(義)가 아닌 이(利)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국제역학관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 무너지는 중국의 모습은 서력동점의 제국주의적 풍토에 대한 현실인식의 단초가 된 것이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일본은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를 생각했다.⁷⁾ 첫째는 국제적 세력균형론이다. 이는 약소국 일본은 혼자서는 서구를 막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아시아 각국과의 힘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여겨, 일본의 안정과 독립이 아시아의 각국과 동일한 이해로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른바 아시아연대론이다. 백인 제국주의에 대해서 동양의 평화가 수호되어야 하며, 그 동양의 평화야말로 일본의 안전과 평화의 선결조건이라고 한 소위 동양평화론도 같은

6) 앞의 책, p.284.

7) 반민족문제연구소, 『또 망국을 할 것인가?』 임종국선집2, 아세아문화사, 1995. p.107.

연대의식에서 생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동양평화, 아시아연대 사상은 당시 다루이(樽井藤吉)가 저술했던 『대동합방론』에서 “조선을 지킴은 일본을 지킴이요 조선의 이익은 일본의, 일본의 이익은 조선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듯, 아시아연대의 제1단계인 자주적 합방을 달성하자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이러한 사상은 1920년대 말엽에는 황국 일본을 구심점으로 한 아시아 각국의 공존공영이라는 대아시아주의와 1930년대의 동아연맹론으로 연결되었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방책은 문명의 논리였다. 이것은 서구의 힘의 근원을 화포 등 과학문명으로 보는 실증적인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일본내에서는 부국강병론이 강력히 형성되었고, 사쿠마(佐久間象山)는 ‘동양의 도덕과 서양의 기술’을 역설하면서 양포술과 병학의 교육에 힘을 썼다. 말하자면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개화노선인데, 이로써 일본은 근대육군과 영국식 해군을 건설하게 되었다. 또한 후쿠자와(福澤諭吉)는 『탈아론』에서 일본은 아시아부터 탈아해 이제 야만적인 ‘아시아동방의 악우(惡友)’와의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⁸⁾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요구하고, 동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보였다. 메이지 이래의 부국강병책은 동양평화, 아시아연대론을 군사적 파시즘적으로 변질시켰던 것이다. 결국 일본의 대조선정략에 소위 동양평화론과 정한론으로 무장하였고⁹⁾ 평화와 정벌이라는 모순된 2개의 뿌리는 그때그때 서로 얽히면서 일본은 대조선 정략 나아가서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정략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8) 이기탁, 『현대국제정치이론』, 박영사, 1997, p.376.

9) 반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p.108.

Ⅲ. 안중근의 동양평화론¹⁰⁾

1. 동양평화론의 내용

이와 같은 국내외의 시대적 상황에서 안중근은 국내에서 국권수호운동과 국채보상운동에 전념하였고, 국외에서 의병 무력투쟁을 전개하고 이와 연속선상에서 이등박문을 총살하기에 이르렀고, 형무소에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동양평화론을 저술하기에 이르렀다. 본문에서 다루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하얼빈 의거 후 체포되어 일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6회에 걸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가 내려진 뒤부터 여순 형무소에서 먼저 『안용칠역사』라는 개인전기를 집필하고, 이어서 순국한 3월 26일 사이에 저술한 미완성 작품이다.

『동양평화론』에서 그는 무엇보다 동양 각국의 자주독립과 평화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독립을 명백히 하면서 한일중 3국이 동맹하고 세 나라의 국민이 상호협력하여 동양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유럽을 포함한 세계평화에 동참하자는 것이었다. 『동양평화론』의 각론의 내용을 平石 고등법원장과의 면담기록인 「청취서」¹¹⁾ 등을 중심으로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일본은 여순을 중국에 돌려주고 중립화하여 그곳에 한중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을 만들고 3국이 그곳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도록 한다. 재정확보를 위하여 회비를 모금하면 수억 명

10) 동양평화론의 원문은 안중근, 『안중근의사자서전』, 범우사, 2002. pp.119-131 참조.

11) 사형언도 직후인 1910년 2월17일 안의사의 平石氏人 고등법원장 면담요지의 기록을 「청취서」라고 표제하여 남겼다. 안의사는 3시간에 걸쳐 “동양평화론”을 설파하였고 하얼빈 의거의 이유를 국제정세를 예중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밖에 안의사의 『東洋平和論』의 미완성 내용의 일부는 통역 團木本喜의 수기가 있다고 국제한국연구원 최서면 원장이 증언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21세기와 동양평화론』, 1995. p.87.

의 인민이 가입할 것이다. 각국 각 지역에 동양평화회의의 지부를 두도록 한다.

② 원만한 금융을 위하여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함께 쓰는 공용화폐를 발행하도록 한다. 각 지역에 은행의 지부를 설치한다.

③ 3국의 청년들로 공동의 군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을 높인다.

④ 한·청 두 나라는 일본의 지도하에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⑤ 한·중·일 세 나라의 황제가 로마 교황을 방문하여 협력을 맹세하고 왕관을 받는다. 세계 시민의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적시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동양평화는 삼국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데서 성립하지만 한국의 독립 없는 동양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이등박문을 사살한 것은 바로 그가 민족독립을 훼손했으므로 동양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고 따라서 동양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족독립의 논리와 동양평화의 논리를 불가분의 관계로 구조화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주의를 약육강식의 틀로 풀어버릴 것이 아니라 동양평화주의의 틀로 묶고 민족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진화론적 제국주의로부터 동양평화를 지키는 보호장치라고 하겠다.¹²⁾

둘째 동양평화론은 황백전쟁론의 연속이라는 측면과 함께 단절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는 인종 그 자체보다 그 배후의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적 질서를 주목하고 따라서 러시아가 백인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의 간악한 폭행을 서양, 동양 어느 것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여 그 행동을 비판한 것이지 인종을 비판한 것은 아니며, 러시아보다 일본이 더욱 간악하다고 하여 역시 인종보다 그 행동에 기준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간악한 침략주의를 저지하기

12) 김영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 경제공동체론", 『안중근의사 의거 9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4. p.34.

위하여 한중은 인종주의를 넘어 서양과 맹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¹³⁾ 그는 인종주의로써의 황인종의 협력보다는 지역주의로써의 동양인의 협력이라는 인식에 도달해 있었고 이를 통해 지역주의로써 서양의 침략을 막아 세계 전체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 그가 신뢰개념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신뢰는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개념의 중시는 매우 주목된다. 한마디로 “일본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의 주권을 위협함으로써 한국민의 신뢰를 잃고 중국을 침략함으로써 중국인의 신뢰를 잃고 세계인의 신뢰를 잃어버렸다”¹⁴⁾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존중하면 한국인의 신뢰를 얻게 되고 여순을 돌려주면 중국인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로마 교황청의 인증을 받으면 세계인민 3분의 2의 신뢰를 받게 된다는 하여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신뢰를 회복하면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동양평화론의 현재적 함의

앞서 보듯, 안중근의 동양평화론¹⁵⁾이 지닌 함의는 한마디로 한·중·일 각국의 개별적 정책 혹은 개별적 사업과는 별도로 동양3국의 공동의 국제적 틀을 내세우고, 기능주의적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먼저 그의 국제평화주의자로서의 면모는 여순의 중립화론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여순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해양 진출기지이면서, 일본의 대륙침략의 거점이며, 중국의 최대항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여순은 당시의 국제적 분쟁지였던 곳이다. 하지만 그는 여순을 중립화하여 동양평화회의 본부를 그곳에 둘 것을 제안하였고, 장래

13) 앞의 책, 안중근, p.122.

14) 안중근, 앞의 책, p.179.

15) 동양평화론은 내용상 한중일을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동북아 지역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각종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연대를 담당하는 곳으로 바꾸는 반전의 제안으로 동북아평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동북아 공동군단 창설에서 보듯 지금의 동북아의 집단안보체제와 연결시키는 해안도 주목할만하다. 100년이 지난 현재 동북아는 아직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이 부진하고 동북아 국가들간 발생할 수 있는 역내 또는 양자간의 분쟁을 적절히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¹⁶⁾ 이와 같은 상황이 말해주듯,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평시위기관리와 분쟁시에 평화적인 해결을 강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고 할 수 있는 그의 집단안보체제 구상은 현 시점에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공동개발은행, 공동화폐발행,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강조한데서 보듯, 그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의 공동개발은 물론 동북아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자본이 필요한 경우 각국 정부자금과 함께 세계의 유휴자본을 끌어들이어 지역내 개발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거대한 시장과 생산성면에서의 국가간의 상호보완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¹⁷⁾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다. 또한 공동화폐 구상 역시 획기적이다. 한중일 3국의 공동화폐를 발행하면 “신용이 생기므로 금융은 자연스럽게 원만해진다”는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도 아시아통화단위(ACU) 설립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진일보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그는 『동양평화론』에서 당시 애국계몽운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민의 발견과 시민에 대한 신뢰가 주목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그는 “현재 독립과 자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상층 위정자들 때문이지 아래 시민들의 책임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에 대한 신뢰

16) 다자간안보체제에 관한 논의는, 고성준외,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4, pp.93-102.

17) 안병준 외, 『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 박영사, 1997, p.318.

는 동양평화회의가 밖으로 “로마 교황을 통해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신용을 얻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힘이 된다”고 하고, 안으로 동양평화회의가 “회원을 모집하고 한 명당 회비로 1원씩 모금하면 한중일의 시민 수억이 이에 가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역시 시민 참가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아세아평화론의 사상적 흐름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¹⁸⁾

IV. 결 론

20세기 초 동북아시아는 전쟁의 역사였다. 일본의 부흥, 러시아의 몰락, 중국의 식민지화, 미국의 등장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21세기에 도 화해와 번영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라도 20세기의 야만의 역사를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국가간 분쟁가능성을 줄이고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와 같은 비극의 역사로 되돌릴 수 없다.

여기에 바로 안중근의 평화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나는 동양평화를 위하여 한 일이니 내가 죽은 뒤에라도 한일양국은 동양평화를 위하여 서로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동양평화를 외쳤던 확고한 사상적 기반의 소유자였다. 또한 그가 남긴 유묵들 대부분이 법원 및 여순 감옥의 교도관, 그리고 통역관 등 적국의 관리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보듯, 그는 감방에서조차 존경받은 높은 인격의 소유자였다. 게다가 공판과정에서도 “이등박문은 우리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의용군 사령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며 안응칠 개인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민족주의자였다. 이러한 그의 불굴의 의지는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희망과 교훈을 주었으며¹⁹⁾, 이를

18) 『한겨레』, 2008.3.26.

19) 각국의 반응은 유병호, “안중근의사 의거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시각”, 박종효, “안

안중근의 평화리더십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필자는 그 실마리를 이상과 같이 안중근이 제시했던 동양평화론에서 찾아보았다. 물론 100여년 전에 제시한 동양평화론이 오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안중근의 구상은 막연한 공상수준이 아니며, 그가 제시한 평화의 해법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동양평화론의 방법론은 제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당시 안중근은 여순을 동북아 3국의 평화중심지로 주창하였으나 100년이 지난 지금 제주는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정부가 지정한 평화의 섬이자, 동북아경제의 중심축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안중근이 던졌던 평화의 방법들이 제주의 현재와 맞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제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을 선점하고 동북아 평화와 균형의 거점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100년 전 안중근이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던졌던 화두를 바탕으로 이제 제주가 앞장서서 동북아시아 각국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른바 동북아 공동체는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의 역할을 차근차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강만길, 『고쳐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고성준 외,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4.
김구, 『백범일지』, 돌베개, 2002.
김영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 경제공동체론”, 안중근의사 의

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 진상과 러시아의 반응”, 박벨라, “안중근의사의 영웅적 위업과 러시아의 문헌자료” 참조, 안중근의사 의거 95주년 기념자료, 2004.

- 거 9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4.
- 국가보훈처, 『21세기와 동양평화론』, 1995.
- 박벨라, “안중근의사의 영웅적 위업과 러시아의 문헌자료”, 안중근의사
의거 9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4.
- 박종효, “안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 진상과 러시아의 반응”, 안중근의사
의거 9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4.
-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또 망국을 할 것인가』 임종국선집2. 아세아문
화사, 1995.
- 사키류조, 『광야의 열사 안중근』, 고려원, 1993.
- 안병준 외, 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 박영사, 1997.
- 안중근, 『안중근의사자서전』, 범우사, 2002.
- 유병호, “안중근의사 의거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시각”, 안중근의사 의
거 9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4.
- 이기탁, 『현대국제정치이론』, 박영사, 1997.
- 滄海老紡 室槁, 『安重根傳』, 大同編輯局 刊行, 1912, 緒言
『한겨레』, 2008년 3월26일.

<ABSTRACT>

Peace Leadership of An Jung-geun

- Focusing on Oriental Peace -

Oh Sang Jun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seeking to thoughts of peace leadership of An Jung-geun(1879-1910), a renowned independence fighter and Northeast Asian pacifist who assassinated Japan's first Resident-General

Ito Hirobumi in 1909 in an attempt to frustrate Japan's annexation of Korea.

Northeast Asia went through a century-long era of imperialism at that time. In this situation, he wrote essay, "On Oriental Peace(DongYang Pyeonghwa Ron)" left unfinished before his execution. In his essay, he proposed methods to resolve conflicts and various disputes. First, Organizing an Asian Peace Conference, Second, Issuing a common currency through common development bank, Third, Creating a joint peace force, Fourth, Form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Fifth, Participating an active citizen. In spite of passing about 100 years, An Jung-geun's suggestions are connected with the future of Jeju because of Northeast Asia is still a potential detonator.

In this context, to promote peace in Northeast Asia, While suppressing conflict potential, My interest is a more active role of Jeju. Though An Jung-geun making Ryojun neutral, Jeju is located at the geographical and geopolitical center of the Northeast Asia, Jeju was designated as the island of world peace and Jeju is pursuing the free international city. This means that the role of Jeju island of world peace will be a hub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at will promote peac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Today, Jeju will be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place for peace making and peace building.

Key Words : peace, peace leadership, An Jung-geun, peace of North East Asia